

# 교정국어 독서편

지문을 바라보는 태도 교정

박영호

여러분 비문학의 원래 과목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독서'입니다.

요즘 많은 강사분들이 정말 좋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글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읽는지에 대해 많은 방법들이 있지요. 저도 이런 글을 읽는 태도나 관점의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딱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비문학, 독서 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을 '글답게' 읽어야 합니다.

물론 80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독서랑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고득점을 위해서는 '독서' 즉, 글 읽기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 향상을 이뤄내지 못하는 학생분들은 이런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철저하게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단순히 문제를 맞히기 위한 연습들만을 하고 있습니다.

18번 문제의 정답 근거, 3문단 4번째 줄 밑줄 찍!

지문 구조분석, 문단 요약, 내용 정리 딱!

이렇게만 해서는 성적이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하느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독서 태도와 독해 도구를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소설이든 만화든 어떤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나요? 또는 글을 읽을 때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표시들을 예쁘게 하면서 읽으시나요? 아니면 책 옆에 내용 구조도를 그리면서 읽거나, 문단마다 요약을 하면서 읽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남기는 게 나쁘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구요. 그러나 이런 표시'만' 하면서 주객전도되는 상황을 문제 삼는 겁니다)

대신 필자가, 혹은 이 글이 나에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필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는 '무조건' 파악하면서 읽으실 겁니다.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을 읽는 것이고 이것을 읽을 때는 지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문을 읽을 때 항상

## 1. '화제를 잡아라'

라고 합니다.

글을 읽더라도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글을 읽을 때 글의 주제, 화제를 잡는 것은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화제를 파악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디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

## 2. '키워드'

입니다. 화제는 곧 글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이루는 내용 요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단어 즉, 키워드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잡고 연결하십시오. 그게 화제를 파악하는 연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핵심 키워드 단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화제로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단어만 체크하면 되냐?

아닙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생소한 경제 뉴스를 읽는다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하겠죠. 그럼 용어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읽어보시죠.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3억2천440만 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7개 사 9천211만 주, 코스닥시장 52개 사 2억3천228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0.4%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38% 늘어났다.

- 한국경제 TV 기사 中 -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줄을 추가해 볼게요.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3억2천440만 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7개 사 9천211만 주, 코스닥시장 52개 사 2억3천228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0.4%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38% 늘어났다.

- 한국경제 TV 기사 中 -

어때요, 조금 낫지 않으신가요? 이 기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의무보유'였습니다. 위의 경우와 다르게 아래의 경우에는 이 의무보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무보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그나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억 2천여 개의 주가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똑같이 키워드에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키워드의 '정의'와 '속성'입니다. 수능 지문에서도 생소한 개념에 대한 글을 자주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수험생이 양자 역학적 터널링 기술이나, 가능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을 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문을 이해하고 글의 이해를 묻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문에서 해당 개념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 정보들은 항상 '정의'와 '속성'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아는 그 Definition입니다. 속성은 정의 이외에 어떤 키워드들의 특징이라고 할만한 모든 정보들을 통칭합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 살펴봅시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고난도 지문으로 유명한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키트’입니다. 실제로 STEP 3에 실릴 정도로 어려운 지문이 맞아요. 자, 어려운 지문도 결국 키워드의 정의와 속성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공부는 뒤에서 해도 무방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트’라는 키워드에 대한 정의와 속성을 구분해서 정리해봅시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 키트의 정의 :

- 키트의 속성 :

키워드의 정의와 속성에 주목하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럼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화제까지 한 번 잡아봅시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 키워드(정의, 속성) :

- 화제 :

---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는 유명인 모델이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중복 출연은 과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키워드(정의, 속성) :

– 화제 :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왑(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키워드(정의, 속성) :

– 화제 :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글을 읽는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수능 국어에 적합한 글 읽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 앞에서 제가 키워드와 화제의 중요성을 계속 어필했었죠? 이번에 말씀드릴 것도 앞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지문을 읽다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개념들을 헛갈리지 않게 정리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태도가

### 3. 비교지점

입니다. 지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개념(키워드)들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문에 제시되는 개념들이 헛갈리지 않을뿐더러 앞에 나온 개념과 뒤에 나오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단 간 유기성까지 잡히는 것이죠. 자주 등장하는 출제 포인트이기도 하구요. 이것도 예시를 통해 알아보시다.

읽으실 때, 백과 바우만을 중심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키워드랑 화제도 한 번 잡아보세요!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백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백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동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읽어보셨나요? 그럼 아래의 빈칸에 한 번 스스로 생각한 답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비교지점	백	바우만
현대 사회		
개체화 현상과 위험·위기		
연대 가능성		

아마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무턱대고 읽으셨던 분들은, 이전에 읽으실 때 보다 정보 정리가 편안하게 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비교지점은 표로 드렸지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기 표에 적혀있는 비교지점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지점들은 ‘대부분’ 앞에서 체크한 키워드의 정의와 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체크한 표와 함께 지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분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2021 수능에서 나온 예약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지문은 ‘STEP 4 - 붙임표’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을 때 그 개념들 사이의 비교지점을 잡아주면서 정보를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읽어 보셨나요? 그럼 비교지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연습한 이 비교지점은 ‘문제(비판점) - 대안(해결방안)’의 구조에서도 발견됩니다.

문제점이 제기된 시점이나 이론의 한계는 곧 대안으로 제시되는 부분에서는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되는 대안이 또 다른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전의 문제점은 해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A는 X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라면, X의 결핍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B는 X를 충족한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예시로 볼게요.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41~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11 [37~42]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

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㉔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 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㉔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 4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 43.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44. 밑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6.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

첨/삭/노/트

첨/삭/노/트

[41~46]

≡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교정 Point 1.

→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무엇과 관련된 위험인가?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 #2문단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교정 Point 2.

→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는 말을, 1문단에 제시된 보험의 정의를 고려하여 이해해보자.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교정 Point 3.**

→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을 보험의 핵심과 연결해서 이해해보자.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 #3문단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 #4문단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교정 Point 4.**

→ 지문의 맥락을 고려해 '고지 의무'를 이해해보자.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교정 Point 5.**

→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교정 Point 6.**

→ '고지 의무'와 연결해서 이 문장을 이해해보자.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 #5문단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교정 Point 7.**

→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세 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교정 Point 8.**

→ '중요한 사항'을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교정 Point 9.**

→ 보험사의 해지권이 배제되는 상황을 납득해보자.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정 Point 10.**

→ 보험사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것이, 왜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두는 것인지 납득해보자.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 #6문단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 **교정 Point 11.**

→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41~46]

≡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의 정의와 속성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보험 정의 체크하고, 속성까지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지문은 일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속성을 보니 조건부 상품이라는 특징이 또 있네요. 그럼 보험에 대해 얘기하기는 할 건데 조건에 따라 실현된다는 특징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겠습니다. 키워드 체크하고 화제 잡고 다음 문단 예상하면서 넘어가면 되네요.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어요.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대요. 우리가 아는 보험이랑 큰 차이는 없네요. 보험료 매달 내고 사고나면 보험금 받고!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미시적으로 따지면서 이해해볼게요. 보험에는 '위험'이라는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걸 보니 위험과 보험료 납부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미리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아마 사고와 관련된 위험이라고도 이해해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해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문장 하나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뚫고 있는 거예요.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의 정의와 함께 연결해서 읽으면 가볍게 납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보험 자체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였으니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겠어요.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의 정의와 관련된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사고 발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이건 정의에서부터 계속 체크했던 내용이죠? 그걸 재진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보험의 이런 특징 때문에 보험은 조건부 상품이래요. 문단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화제는 보험으로 잡고 넘어가되, 뒤에서 보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때 그 조건(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설명하겠다는 점을 미리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 #2문단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보험에 대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위험에 따라 나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맥락에서 공정한 보험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만 딱 제대로 잡고 읽는다면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결국 사고 발생 확률을 따지는 것도 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징 때문이겠죠? 앞에서 예상한대로 2문단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문의 흐름을 잡고 내용을 납득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정보였습니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1문단에서 보험의 정의를 체크할 때 생각했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실전에서는 이 문장을 읽고 바로 보험의 정의 떠올려주시면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네요. 앞에서 말했던 보험의 정의를 재진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험료랑 보험금은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사고 발생 확률은 사고 발생 위험이겠죠? 앞에서 보험의 정의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사고 발생 확률과 위험이 같은 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서술의 초점이 보험료 · 보험금 책정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도 캐치해주셔야 합니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보험금이란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확률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확률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위험을 고려하는 거죠? 핵심만 기억하고 딱 읽어줍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공정하다고 하네요. 결국은 또 위험을 제대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맥락이네요. 1문단에서부터 생각했던 내용이죠? 또 2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앞에서 위험을 고려해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바로 여기서 그걸 어떻게 책정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험이라는 키워드는 가볍게 체크할 수 있겠죠? 정의 자체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말 그대로 위험을 제대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이 공정/한 보험입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속성으로 볼 수 있겠네요.(정의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공정한 보험 : 보험료 = 보험금 기댓값  
 공정한 보험 :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왜 공정한 보험이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공정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 기댓값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고 발생 확률과 관련된 개념이네요. 위험을 고려하는 맥락에서 받아 들여주면 됩니다.

보험금 기댓값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금

그런데 공정한 보험에서는 이 보험금 기댓값이 보험료랑 같아야 한다고 했죠? 그럼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이번에는 보험료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정의는 어렵지 않네요. 말 그대로 보험료의 비율이라서 보험료/율입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크거나 작으면 보험금 총액과 보험료 총액이 같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네요. 보험료 책정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 위험이 고려되고 있네요.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이어야 한다네요. 둘이 같아야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기 때문이겠죠? 앞에서 두 개가 서로 크거나 작으면 보험금 총액이랑 보험료 총액이 달라서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아무튼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위험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문단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냥 보험금 · 보험료 책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 상황 던져주고 다음 문단에서 이 문제의 대안을 알려주겠구나~ 싶을 정도로 눈에 흐름이 뻗네요. 그냥 2문단과 4문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문단입니다. 2문단에서 위험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핵심 포인트를 잡았죠? 그 맥락에서 공정한 보험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보험료 책정이 잘 안 된다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위험을 잘못 파악해서 위험 공동체 형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돼서 문제가 발생하니 이를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문단이 끝납니다. 그냥 읽고 다음 문단에서 해결 방안 등장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내용 자체는 크게 주목할 게 없습니다만 서술의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2문단에서는 공정한 보험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공정한 보험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럼 앞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는 현실적인 내용이 등장하겠습니다. 역시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럼 당연히 위험도 같이 고려하겠죠? '현실'에서의 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해요!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조금 주목할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현실에서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위험'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네요. 분명 2문단에서는 위험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고 해요. 보험 가입자 자신에 대한 위험의 정도는 당연히 보험사에 비해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런데 그 위험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 보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된 거예요. 문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들어 오면 위험 공동체의 사고 확률에 비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죠. 그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네 보험금 총액이 크면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지급해야 할 돈이 늘어난 거니까요. 그렇다면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2문단에서 읽은 보험료율과 공정한 보험으로 이해해보자면, 보험금 총액이 늘어난 상황은 보험료율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금 총액 = 보험료 총액이어야 하죠. 현실에서 공정한 보험이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보험사의 입장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얘기해줍니다. 문제 상황을 재진술해주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네요. 위험 공동체에 비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 때문에 애꿎은 다른 사람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위험에 상응하는 위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위험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 상황이네요.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 자체는 보험사가 사고 발생 확률,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했죠? 그 부분을 설명해주는 겁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의 위험을 고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정작 보험사는 그 정보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면, 내가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

사고를 대비하려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사보다 내가 내 병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상황이에요. 막말로 내가 병을 잘만 속이면 보험사는 모를 테니까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정작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보험사가 잘 모르는 입장인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문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겠네요! 그 대안이 뭔지를 확인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또 문제와 대안은 항상 연결되어있다고 했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포인트도 끌고 내려갑시다!

#4문단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의 대안으로 고지 의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 체크하고 고지 의무와 보험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끝입니다. 다만, 조금 특이점은 고지 의무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앞문단과 연결해서 파악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사항과 연결하면서 이해하기도 해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단 자체를 읽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왜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마지막 문장에 그 이유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보험사가 보험료나 보험금을 책정할 때 위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정보는 보험사보다 보험 가입자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잘못 책정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고지 의무라는 점만 잘 기억했다면 마지막 문장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납득하면서 읽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혹은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세한 건 한 문장씩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고지 의무라는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딱히 정의를 명시적으로 해주진 않았지만 '이러한' 수단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개념을 드러내고 있어요. 앞문단에서 다뤘던 내용을 자연스럽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보험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 정도는 실전에서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 고지 의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서술의 초점이 고지 의무에 맞춰지겠다는 점까지 생각해줘야겠네요.

조금 더 생각해볼까요? 앞에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나요? 위험을 고려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점이었죠? 그럼 이 고지 의무는 위험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제대로 책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점까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제 기억나시죠? 문단 서술의 초점이 고지 의무에 맞춰지긴 하지만 결국 화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계약의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당연하네요. 청약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꼭 스스로 어휘를 찾아서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할래요! 라고 말하고 보험사가 네 가입시켜줄게요! 하는 그 단순한 관계입니다. 이제 보험 계약의 특징이 뒤에서 고지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이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결국 고지 의무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고지해야 하는 의무였던 겁니다. 이걸 실전에서 꼭 거쳐야 하는 사고 과정이에요.

이제 분석에 조금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 문장까지의 내용으로만, 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면서 읽었다면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할 때 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지 서술형으로 답할 정도로 이해했다면 본인의 독해력이 수준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 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걸 생각하려면 고지 의무가 도입되는 그 흐름부터 짚어야 해요. 고지 의무는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비대칭성은 보험 가입자의 위험과 관련된 정보였죠. 이걸 제대로 알아야 보험사가 보험금과 보험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험 가입자가 알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항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함은 당연히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일 테고 그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제대로 책정하기 위해서이겠죠. 이걸 제대로 모르면 어떤 위험 공동체에, 더 높은 사고 발생 확률(위험)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 책정을 제대로 못해서 보험금과 보험료 총액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은 보험 가입자의 위험에 대한 정보일 테고 그걸 알아야 보험금·보험료 책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려야 하는 거네요.

이 해설을 읽고 "이렇게까지 해야해? 너무 사후적인 해설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사후적인 해설입니다. 문장 해설은 애초에 지문을 다 읽고 얼마나 꼼꼼히 이해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해설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문장까지 읽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완벽히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실전에서도 대충 왜 그런지는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들이 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걸 해결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키워드가 완전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중요한 사항이에요. '앞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됐으니,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정보를 알려줘야겠지' 정도로 납득하고 넘어가는 것 정도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전에서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지문의 유기성만 제대로 파악한다면요! 그리고 이 해설은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해해보는 과정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 지문을 실전에서 맞닥뜨렸다면 이 문장을 읽고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속성이라고 봐도 좋고 정의로 봐도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험 계약이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이뤄진다고 했으니 승낙 결정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적인 보험료 책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도 결국 앞문장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료·보험금 책정에 문제가 생겼죠.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사항이 보험료 책정 근거가 된다고 하니 결국 중요한 사항은 보험 가입자의 가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중요한 사항을 알린다는 건 보험료를 제대로 책정하는 등 앞문단에서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데 이것마저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재진술하고 있습

니다. 실전에서는 정말 이 문장만 제대로 읽어도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고지 의무가 앞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도 문장을 읽으면서 다 이해했죠?

### ☞ #5문단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고지 의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이번에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단 길이도 엄청 길고 정보량도 적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헛갈릴 수 있어요. 실전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하나 딱 잡아놓고 읽는 게 좋습니다. '고객 실수 - 보험사 해지권 · 반환 청구'가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 제한, 반환 청구 제한이라는 두 가지 예외가 등장하는 구조예요. 일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잡고 나머지 예외와 구분하면서 잘 읽으면 됩니다. 예외에 주목하라는 태도 다들 기억하시죠? 비교지점의 연장선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 중간에 일반적인 법 위반 VS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비교지점이 잡히니까 여기에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게 고지 의무였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게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거라고 합니다.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으니 이것도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로 보네요.

그런데 왜 중요한 사항을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할까요? 역시나 고지 의무라는 개념이 도입된 배경이나 그 맥락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쉽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이걸 보험사한테 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문제는 보험료 책정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였고요. 즉 보험 체결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려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보험을 체결하고 나서 알리면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로 인해 보험 가입 동기를 상실하는 사람도 생길 테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문단에서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서술의 초점이 '고지 의무 위반'에 맞춰지겠다는 생각으로 다음 문장 읽어야겠어요. 또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상황으로도 볼 수 있겠죠?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또 보험료·보험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다는 문제 상황을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

반에 대한 대안으로 계약 해지권이 등장한 것이네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결국 보험 계약에서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테고 그럼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입자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아예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네요. 납득할 수 있겠죠?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계약 해지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권이 생기니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다만 보험사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 해지권의 속성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보험금을 줄 책임이 없겠죠. 그렇다 보니 이미 지급한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이해가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계약 해지권이 등장했고 이 계약 해지권의 정의와 속성을 정리하면 '계약 해지권 - 계약 해지 + 반환 청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에서의 의무 위반과 고지 의무 위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

사의 해지권 행사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진술 문장이네요. 하이퍼리얼리즘 지문에서,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팝아트와 비교했죠? 그 경우랑 비슷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의무 위반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재진술 문장이라는 점과 함께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의무 이행 강제 및 손해 배상 청구'입니다. 일반적인 의무 위반에서는 둘 다 가능한데, 고지 의무 위반에서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네요. 오로지 해지권 행사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해지권 행사로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결국은 계약 해지권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되는지 생각해봐야겠죠? 일종의 예외라는 생각을 갖고,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면서 읽어야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봅시다. 그때는 그냥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깰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경우는 보험사 또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이게 다르네요. 일단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같은데, 보험사가 그걸 알았거나, 보험사 책임으로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 해지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예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약 해지권이 없으니 당연히 보험금도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이걸 납득하려면 3문단에서 봤던 문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와 관련된 위험, 사고 발생 확률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

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반한 사실을 보험사가 알고도 눈감았다? 혹은 보험사가 실수했다? 이러면 다른 보험 가입자들(위험 공동체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손해를 입는 겁니다. 보험사 때문이에요! 그럼 보험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서, 계약 해지권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계약을 얻는 건 이상하잖아요? 역시나 실전에서까지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인 경우 VS 예외적인 경우(계약 해지권 X) 정도로 파악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실전에서는 앞에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재진술)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도 분석할 때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건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잘못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보험사의 잘못 또한 있는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하면서 읽었던 포인트이기도합니다.

아무튼 그럼 둘 다 잘못이 있는데 굳이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둘중 보험사가 더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게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잘못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잘못된 상황에서 이 계약 해지권을 인정 안 한다? 그럼 둘 중 보험사가 더 잘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뒤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한 문장씩 뜯어보는 거예요.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계약 해지권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속성이네요. 행사 기간이라는 계약 해지권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를 보니, 보험 가입자를 배려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는 계약 해지권에 대한 정보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문장이랑 연결해서 이해해보자면, 뭔가 보험 가입자를 좀 더 배려해 준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앞에서든 둘 다 잘못했을 때 보험사의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보험 가입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에 기간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를 좀 더 봐준다는(?) 생각도 함께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이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앞에서는 계약 해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계약 해지권에 대한 정보를 던져주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보험 가입자를 배려해준다는 느낌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점을 파악해주시면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요. 물론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는 서술 초점 자체는 유지되지만요!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고와 인과가 없으면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네요. 그럼 계약 해지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자꾸 내용이 왔다 갔다해서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단 서술의 초점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맞춰졌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읽는다면 조금

그 난잡함이 덜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오잉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헛갈립니다. '계약 해지권 행사 → 보험금 반환 청구 가능'이라는 흐름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예외라고 봐야 해요. 원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기는 했는데 그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돈을 주긴 줘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도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긴 한 것이니까 보험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외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속편한 거예요. 총 3가지 케이스가 '반환 청구권', '보험금 지급'이라는 점에 대해서 비교지점이 잡혔습니다.

 정리할게요.

고지 의무 위반	일반적인 경우	보험사도 잘못된 경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계약 해지권	○	X	○
보험금 반환	○	X	X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같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했었죠?

☞ #6문단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간단한 마무리 문단입니다. 고지 의무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만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특성은 그 보험 가입자의 위험(사고 발생 확률)일 겁니다. 고지 의무는 그 위험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험료를 잘못 책정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죠. 흐름 기억하시죠? 그걸 정리해주는 문장이예요.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1문단에서 나온 보험의 정의와 속성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역시나 그냥 손실 대비라는 보험의 목적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보험이라는 큰 화제와 보험료, 보험금 책정에 대한 정보가 등장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에 대한 정보들도 정리해야하는 지문입니다. 정보량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요. 다만 지문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재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이라면 재진술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했던 지문입니다. 특히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에서 재진술을 엄청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씩 뜯으면 막상 해야할 생각은 고지 의무 부분에서 더 많은데 체감상 보험료 · 보험금 내용(2문단)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도 2문단 또한 결국 위험을 고려한

다는 보험의 특징을 중심으로 읽는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지 의무 부분을 읽으면서 중요했던 점은 5문단을 읽을 때 예외를 잘 활용하면서 비교지점을 정리하는 태도였습니다.



41. ③

- 사실상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역시나 지문의 흐름 짚고 넘어갈게요. 보험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그 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려주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고지 의무였죠, 그러면서 고지 의무와 관련된 정보들 알려주고 뭐 고지 의무가 보험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된다~ 라는 식으로 지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선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보험사가 준수할 법률 규정을 알려주진 않았죠? 법률 규정이라고 할만한 건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건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할 의무였으니까요.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보험 상품 판매 전략이요...? 바로 지워줍시다.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공정한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로 고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기까지 했어요. 정답이네요.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은 없었습니다. 그냥 고지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케이스가 나뉜 것이었죠. 분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경제적 해결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 자체도 없었고요.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 보험 상품 '거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었죠?

## 42. ④

- 크게 두 가지로 핵심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 자체에 대한 내용,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전체적인 화제나 흐름은 다 잡았으니 그대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에 대한 내용은 보험금·보험료 책정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거기에서 중요했던 게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었죠? 또 공정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읽었습니다. 고지 의무에서는 계약 해지권을 중심으로 이해했구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선지 판단 해봅시다!

① 보험사가 청약에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둘이 뒤바뀌었네요. 가입자가 청약하고 보험사가 승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지 의무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납득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었어요.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공정한 보험에 대해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두 개가 같아야 공정한 보험이었죠? 쉽네요.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보험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보험이었죠?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조건부 상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이라는 조건을 눈여겨 보기도 했어요.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고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고지 의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걸 통해서 가입 승낙을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했어요. 막 꼬아 놓은 선지는 아니네요. 그냥 핵심 개념을 물어보는 선지예요.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 계약 해지권의 핵심을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계약 해지권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잘못을 했을 때 보험사에 부여하는 권리였어요. 여기서 보험사는 전혀 잘못된 게 없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험사의 잘못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등장했죠. 예외로 잡으면서 이해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43. ⑤

- 이 지문의 킬러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수식'으로 숫자를 계산해가면서 풀었다면 말이지! [A]에서 나온 공정한 보험을 제대로 체크하고 각 변수들 간의 관계만 잘 파악했다면 수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보기> 봅시다!

— <보 기> —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 여기서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는 말을 얼마나 잘 찾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율(보험료/보험금)', '보험금 기댓값(보험금 X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라는 관계가 바로 성립하거든요. 그럼 A의 경우 '보험료율 = 0.1, 보험료 = 0.1 X 보험금'이겠고 B는 '보험료율 = 0.2, 보험료 = 0.2 X 보험금'이겠습니다. 또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이기도 하겠네요. 이것만 제대로 잡고 선지 하나씩 뚫어볼게요.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보험료랑 보험금 기댓값이 같은데 보험금 기댓값이 변하지 않는다니요... 동어 반복인데 앞에서는 오르고 뒤에서는 안 오르다니.. 이상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X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오르면 당연히 보험금도 올라야합니다. 사고 발생 확률은 고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 총액이 두 배 증가할 테고 그럼 당연히 당연히 보험금 총액 두 배로 늘어나겠죠. 보험금 총액이랑 보험료 총액이 같으니까요.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보험료 = 보험금 기댓값인데...? A는 변하지 않지만 A는 두배가 된다고요? 헛소리네요.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입니다. 0.1, 0.2로 다르네요. 너무 쉽죠?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보험료 = 보험금 X 사고 발생 확률입니다. A는 보험료 = 보험금 X 0.1, B는 보험료 = 보험금 X 0.2겠네요. 보험금이라는 변수가 같으면 사고 발생 확률이 B가 두배이니 보험료는 B가 두 배 더 크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 보험료 = 보험금 기댓값입니다. 보험료가 같으면 당연히 보험금 기댓값도 같겠죠. 당연한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변수 간의 관계를 문장으로 잘 읽은 학생들은 정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수준으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식으로 계산해가면서 열심히 푸셨을 거예요.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정말 지문에서 수식이 나왔을 때 제발 그 수식 자체에 주목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국어 영역은 여러분들에게 산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글을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는지를 물어보죠. 각운동량 지문에서도 식이 나왔지만 계산하지 않았어요. 마침표 단계에 나올 BIS 지문의 <보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식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는 풀이로 풀어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어떤 식들이 나오면 변수 간의 관계를 잘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 44. ①

- 고지 의무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고지 의무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죠?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에 대한 내용을 계약 해지권을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외를 중심으로요. 또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지점을 잡기도 했죠? 이 정도만 생각하고 선지 판단 합시다!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일반적인 의무 위반과 비교지점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만 얻는다고 했어요. 비교지점은 항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네 고지 의무가 어떤 배경에서 도입됐는지, 이게 어떤 문제의 대안인지만 잘 읽었다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마찬가지로입니다. 중요한 사항, 보험 가입자의 위험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죠.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그리고 위험과 같은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비해 더 많이 알고 있었죠? 이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고지 의무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네 이게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였고 이걸 해결하는 게 고지 의무였습니다.

#### 45. ④

- <보기>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을 중심으로 <보기>를 읽어야겠죠? 내용 일치 문제를 풀었던 생각처럼 <보기> 봐주면 되겠습니다!

#### <보 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행사 및 보험금 반환에 대한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보기>만 보면 B가 잘못했어요.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럼 A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A의 잘못이 있냐 없냐, 사고와 중요한 사항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냐 없냐도 고려해야겠지만요. 계약 해지권을 중심으로 고지 의무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경우, 예외 2가지로 나뉘고 비교지점도 잡아줬죠? 애네들도 물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 하고 선지 판단 해봅시다.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보험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보험사가 잘못하면 보험사의 잘못에 더 중심을 두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니까 보험금 반환 청구도 불가능하겠다고 이해했죠? 문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정답이 갈리는 문장입니다. 계약 해지권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A에게 과실이 없으면 그냥 B만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고지 의무 위반 경우네요. 이때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줬

다면 이걸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둘 다 잘못된 상황이에요. 역시나 이때는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①번 선지랑 같은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두 번째 예외에 대해서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있죠. 이걸 예외로 잘 정리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 보험금 반환 청구'라는 내용과 헷갈릴 수 있다고 했어요!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고지 의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사고 발생 전에 얘기하든 즉시 알리든 그냥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말하지 않았으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사실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말 자체로 받아들이고, '즉시 알려도 아무튼 위반한 건 맞지않나?' 정도로 선지를 지우면 가볍게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정확하게 풀이합시다!

46. ①

어휘 생략